

생략(Ellipsis)과 복원가능성(Recoverability)

金 寅 淑

1. 생략(Ellipsis)이란 장황한 표현을 줄이는 일종의 생략장치이다. 생략된 부분은 좁은 의미에서는 言表(utterance)안의 어떤 문법범주가 될 수도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명제(proposition)를 구성하는 한 부분 즉 predicate 아니면 argument가 될 수도 있다.

Quirk에 의하면 words는 그것이 「유일하게 복원가능한(uniquely recoverable) 때에 한해서 생략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그러지 못한 경우에는 엄밀한 의미에서 생략현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의하면 unique recoverability는 linguistic context에 좌우된다고 한다. 이 말의 밑바닥에 깔린 그의 주장은 unique recoverability만이 생략의 자격을 부여하며, 생략된 부분이 유일하게 복원되는 것은 anaphoric context에서만 가능하다는 뜻이 된다.

본고에서는 (1) context에 관계없이, 생략은 많은 표현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2) anaphoric context에서도 생략된 부분의 유일한 복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3) 생성문법에서 사용하는 삭제규칙(deletion rule)으로는 모든 생략된 표현을 깨끗이 생성할 수 없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2. Quirk(1972)는 context를 (i) linguistic, (ii) non-linguistic, (iii) situational의 세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그가 설정한 (i)은 달리 표현하면 anaphoric context이며, (ii), (iii)은 전후 문맥이 흐린 non-anaphoric context인 것 같다.

먼저 'linguistic'(anaphoric) coetext에서도 생략된 요소가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는 예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편이상 생략되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로 표기하기로 한다.

- (1a) √Tired, he kept on working.
- (1b) √Punished, he will not cooperate.

P
420
Sept 11
1980
C.3

(1a), (1b)는 Quirk가 말하는 'weak ellipsis'인데 종속부(분사부)에는 분명히 주절의 주어 he가 생략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종속접속사가 (1a)에서는 Although인지 Though인지 아니면 Even though인지 유일하게 복원할 수가 없으며, (1b)에서는 If인지 아니면 When인지 유일하게 복원할 수가 없다.

(2a) Although $\sqrt{\text{knowing French}}$, he attended the course.

(2b) Although $\sqrt{\text{living many miles away}}$, he attended the course.

종속접속사가 있는 (2a), (2b)에서 (2a)의 경우는 *he was knowing은 비문장이므로 he knew만 복원이 가능하나 (2b)에서는 he is living, he was living, he lives, he lived가 모두 복원되므로 유일복원의 조건에 위배된다.

(3a) Houses $\sqrt{\text{owned by absentee landlords}}$ will be confiscated.

(3b) The police rounded up men $\sqrt{\text{known to have been in the building}}$.

(3a), (3b)에서 우선 관계대명사를 유일하게 복원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즉, (3a)에서는 which 아니면 that, (3b)에서는 who 아니면 that이라는 choice가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3a), (3b)에서는 생략된 Be 동사가 are 아니면 were 두가지가 모두 될 수 있다는 경우가 생긴다.

다음은 변형문법에서 다루는 'Gapping Rule'에서 유일복원가능성의 문제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constituent를 삭제할 수 있는 규칙으로 만들어진 T-rule 중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규칙이 아마도 'Gapping Rule'일 것이다. 이는 등위구문안에서 같은 동사 또는 술부(predicate)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고안된 장치이다

(4a) My brother visited Japan in 1960, and $\sqrt{\text{my sister}}$ $\sqrt{\text{in 1961}}$.

(4b) John believes Mary to be guilty, and $\sqrt{\text{Tom}}$ $\sqrt{\text{to be innocent}}$.

(4a)는 second conjunct를 and my sister [visited Japan] in 1961으로 복원할 수 있고, and [my brother visited] my sister in 1961으로도 복원할 수 있다. 이에 반해서 (4b)은 and [John believes] Tom to be innocent로도 되고 and Tom [believes Mary] to be innocent로도 gapping이 되나 후자는 비문장이다. 한편 (4b)은 Langendoen(1974)의 Nonleft-Peripheral NP Constraint와 Hankamer(1973)의 No-Ambiguity Condition에 드러맞으나, (4a)는 이들 양자에 대한 반증으로 제시된

Kuno(1975)의 예이다.

- (5a) Some people go to Europe every year, and others \vee every other year.
 (5b) John hit Mary with a stick, and \vee Bill \vee with a belt.

(5a)에서는 분명히 context 상으로 보아 생략된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데 반해서 (5b)는 그렇지 못하다. 문맥상 이미 알고 있다는 말은 곧 복원되어지는 부분이 old information을 나타내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면 old information을 지나고 있는 부분은 생략되고 new, unpredicted information을 나타내는 부분만 남겨진다. 그런데 (5b)에서 생략된 부분이 유일하게 복원되려면 Minimal Distance Principle을 원용하거나 아니면 Discourse Principle을 원용해야 한다. Minimal Distance Principle에 의해서 (5b)의 John hit가 Bill 앞에서 gapping 되거나, 아니면 Discourse Principle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question-answer pair가 나온다.

- (6) Q: With what did John and Bill hit Mary?
 A: John hit Mary with a stick, and Bill \vee with a belt.

이와 같이 non-syntactic approach를 원용해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유일복원가능성은 'linguistic'(syntactic) context에서도 얻어내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준다.

- (7a) John persuaded Mary to donate \$300, and \vee Bill \vee to donate \$400.
 (7b) John promised Mary to donate \$300, and \vee Bill \vee to donate \$400.

(7a)에서는 [John persuaded] Bill to donate \$400와 Bill [persuaded Mary] to donate \$400가 복원될 수 있다. 그런데 후자가 받아들여질 수 없는 sequence라는 것은 Minimal Distance Principle과 Old-New Information Principle과 Subject-Predicate Interpretation Principle 등을 모두 위배하기 때문이다. (7b)의 경우 [John promised] Bill to donate \$400와 Bill [promised Mary] to donate \$400가 복원가능하며 이들은 모두 받아들여질 수 있는 문장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의 세가지 조건에 비추어보면 전자는 Subject-Predicate Principle를 위배하고 후자는 Minimal Distance Principle과 Old-New Information Principle을 위배하고 있다. (7a), (7b)의 유일한 차이는 전자가 persuade, 후자가 promise라는 점에 있다. 전자의 NP₁ persuaded NP₂ VP 문형에서 NP₂는 VP의 기저형의 주어와 일치하는데 반하여, 후자의 NP₁ promised

NP₂ VP의 문형에서는 NP₁이 VP의 기저형의 주어와 일치한다는 점에 있다.

그 밖에도 아직 언급되지 않은 다른 여러가지의 비통사론적 요인들이 생략표현의 문법성 여부를 결정지어주고 있음이 더러 논의되어오고 있다. 어쨌던 순수한 통사론의 영역에서 이같은 달갑지 않은 비통사론적 요인들이 삭제에 대한 제약을 가해오고 있다는 사실은 한마디로 통사론적 요인만으로는(e.g. gapping rule, deletion rule, etc.) 생략부분을 유일하게 복원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준다. 바꿔말하면 생략된 부분을 문법적으로 확정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grammatical indeterminacy').

3. 이번에는 non-anaphoric하면서도 생략된 부분을 구조적으로 지시해주는 linguistic context에서의 복원가능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대개의 경우 이 같은 생략현상은 영어의 informal style 즉 familiar English에서 많이 나타난다.

(8a) Been hitting the bottle again, haven't you?

(8b) Last night's party go well?

(8a)는 anaphoric sentence는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볼 때 생략되었다고 보는 부분은 대명사 you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tag question이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는 identity condition과 auxiliary contraction 등의 조건이 가미된 deletion rule이 있으면 복원이 가능해 진다. (8b)에서는 생략된 부분은 조동사 Did라는 것을 곧 알 수 있기 때문에 유일한 복원이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의 예는 어떤가?

(9a) Told you so.

(9b) Hope he's there.

(9c) Doesn't look too well.

(9d) Can't play at all.

(9e) Hot?

(9a), (9b)에서는 잠재적인 주어가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는다. I, We 중 어느쪽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복원작업중 (9c)에서는 It, He, She가, (9d)에서는 I, You, He, She, We, They가 후보로 난립한다. (9e)에서는 Is it, Are you가 자리다툼을 한다. 따라서 구조적 문맥(structural context)이 생략된 부위의 category를 명백히 지시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유일무이하게 복원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

까?

4. 다음으로는 linguistic 또는 structural context를 요하지 않고도 이해가 성립되는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것 역시 infomal style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들이다.

(10a) Formulae:

How about joining us?
Down with KKK!
To think I was once a millionaire!
That idiot!

(10b) Greetings:

Good morning.
See you.
Many thanks!
Many happy returns!

(10a)의 표현들은 productive한데 비해서 (10b)의 표현들을 non-productive하다는 것을 제외하면 양자간의 차이는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들 표현에서 생략된듯 싶은 부분을 굳이 복원하여 표현을 늘려본다면 더욱 어색한 문장이 될뿐만 아니라 거꾸로 삭제규칙을 사용하여 다시 단축된 표현으로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위에 주어진 (10a), (10b)는 그것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이고 기능적인 표현들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생략된 것으로 여겨지는 부분의 문법적인 확정성은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다.

5. context를 요하지 않고도 이해가 성립되는 또 다른 표현들에 대해서 살펴보자. 2,3에서 우리는 이해의 성립을 위해서 anaphoric context와 structural context를 요하는 생략표현들이 있음을 보았다. 그런데 다음에서는 특정한 linguistic context를 요하지 않는 표현들의 예를 살펴보기로 하자.

언어의 일상적 사용에 있어서 오히려 생략되지 않은 표현이 더 강황하며 거추장스럽고 어색한 경우가 허다하다. 상표에 적힌 내용물의 이름, 명령이나 요구의 표현, 감탄문 등이 바로 그런 표현의 예들이다. 한가지 예로 어떤 병에 붙인 "Clover Honey"라는 표현이다. "Clover Honey"만을 남겨놓고 생략된 부분은 다분히 언어외적 요소이다. 만약 "This jar contains clover honey"라고 했다면 오히려 상표의 효과를 망쳐놓는 우스꽝스런 효과를 낼 것이다.

생략에 의해서 나타나지 않은 명제 (proposition)의 일부를 문법적으로

유일하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음의 대화를 관찰해 보자.

- (11) A: Hey Mike.
 B: What?
 A: *Ann's coat*.
 B: O.K.

위의 "Ann's coat"란 표현에서 이 constituent는 argument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조적인 생략이 아니라 일종의 기능적 생략(functional ellipsis)이다. 이는 분명히 predicate가 생략된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해의 성립을 위해서 생략된 부분은 definite 하지만 유일한 복원은 불가능하다. "Ann's coat"뿐만 아니라 "Tea"나 "The front door, please"도 모두 이에 해당하는 기능적 생략의 현상이다. (11)을 옆에서 엿들었다면 "Ann's coat"란 말의 내용은 전혀 알길이 없지만 한가지 분명한 것은 대화의 당사자들간에는 확실한 이해가 성립되었다는 점이다. 생략되었음직한 가능한 predicate를 추측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늘어놓을 수 있을 것이다.

- (12) Don't forget to bring *Ann's coat* to the reception.
Ann's coat would be perfect to wrap the stuff.
 Put *Ann's coat* in a box so she can take it home.
 ⋮

이와같이 "Ann's coat"에서 생략된 부분을 유일하게 복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11)에서와 같은 기능적인 생략은 그 표현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명제안의 생략된 성분이 유일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따라서 명백(definite)해야 한다. (12)에서와 같은 무한한 수의 문맥이 복원될 수 있으나 그렇다고 대화의 의미의 구조가 모호한 것은 아니며 대화의 당사자 간에는 그것이 일정하고 명백한 것이다. 다만 문법적으로 유일하게 결정하여 생략된 predicate를 복원할 수 없다는 것 뿐이다. 달리 말하면 문법이 생략된 부분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deletion rule을 적용하여 "Ann's coat"를 도출할 수 있는 원형을 얻어내는 일은 불가능 하다는 것이다.

다음의 예를 관찰해 보기로 하자.

- (13) A: Hello Henry.
 B: What happened?
 A: *Bobby refused*.

B: What will he do now?

“Bobby refused”에서는 argument가 생략되어 있다. (12)에서의 predicate의 생략과 비교가 된다. (13)의 표현을 옆에서 엿들었다면 Bobby가 무엇을 거절했는지 알 수 없지만 대화의 당사자들은 알고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 표현이 주는 효과는 대명사 “it”(definite pronoun)가 주는 효과와 동일하다. 그것이 “Bobby refused to do it”이지 to do something이 아니라는 것은 이해성립의 성질상 분명해진다. to do it와 to do something은 분명히 의미가 다르기 때문이다.

(14) A: Hello Henry.

B: What happened?

A: Bobby refused to do it.

B: What will we do now?

(13)과 (14)를 비교해 보면 “Bobby refused”와 “Bobby refused to do it”는 문맥이 동일한 sequence로 전개되며 양자가 주는 효과도 동일하다. 만약 (13), (14)의 마지막 의문문 대신에 “What did he refused to do?”라는 의문문을 사용한다면 매우 부자연스런 sequence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Bobby refused”에서 풍기는 명확성이 거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략된 부분이 명확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생략된 argument를 유일하게 복원할 수 없는 것은 (11)의 “Ann’s coat”에서와 마찬가지로이다. (11)에서는 복원가능성 있는 표현이 무한한데도 불구하고 이해의 성립을 위해서 definite한 것이 생략된것 처럼 보인것 같이, (13)에서도 마찬가지로 생략된 부분이 definite한 것으로 볼수 있는 데도 그 부분이 유일하게 복원될 수 없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문법은 (11), (13)에서 보여준 두 종류의 생략현상중 어느 하나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즉, 문법은 (i) “Ann’s coat”에서 처럼 기능적 생략이 일어났을때 가능한 predicate를 유일하게 결정해 주지 못하며, (ii) “Bobby refused”에서와 같은 성분생략이 일어났을 때에도 생략된 가능한 argument를 유일하게 결정해 주지 못하고 있다.

문법적 분석의 과제는 생략현상이 일어났을때 실제로 발음되어 표면상에 나타나는 형식들의 특성을 바르고 명확하게 드러내는데 있다고 하겠다. “Betty died”라는 표현에는 생략현상이 없는 것으로 해석이 되지만 “Betty’s death”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순수한 명사구하고는 다르다는 의미론적 해석의 차이에서 올 것이다. “Henry explained”는 well-

formed sentence이지만 “Henry expected”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은 *explain*과 *expect*의 어휘의 의미론적 특성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Ann’s coat”나 “Bobby refused”라는 표현속에 담긴 언어는 바로 *Ann’s coat*와 *Bobby refused*이지 그 이상의 것도 아니다.

6. 우리는 위에서 유일하게 복원할 수 있는 표현만이 생략문이 되는 것은 아니며, 생략적 표현에서 유일하게 복원되지 않는 부분도 많다는 사실을 알았다. 또한 non-anaphoric context는 차치하고라도 anaphoric context에서조차도 생략은 문법의 삭제변형으로만 생성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의미해석론적 고려가 뒷받침 된다는 것도 알았다. 생략 (Ellipsis)과 삭제 (Deletion)의 개념 설정은 동일한 평면에서가 아니라 오히려 $E > D$ 의 관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생략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삭제규칙대신 삭제를 설명하는 「생략규칙」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언어학의 과제라는 것을 부기해 두는 바이다.

Works Consulted

- Hankamer, J. (1973) ‘Unacceptable Ambiguity’, *Linguistic Inquiry* 5, 17-68.
- Jespersen, O. (1924) *Philosophy of Grammar*, W.W. Norton & Co., New York.
- Jespersen, O. (1969) *Analytic Syntax*, New York: Holt, R. & W.
- Jackendoff, R.S. (1971) ‘Gapping and Related Rules’, *Linguistic Inquiry* 2, 21-35.
- Kuno, S. (1972)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Linguistic Inquiry* 3, 269-320.
- Kuno, S. (1975) ‘Gapping: A Functional Analysis’, *Linguistic Inquiry* 4.
- Shopen, T. (1972) ‘Ellipsis as Grammatical Indeterminacy’, revised version of paper presented at the 1972 summer meeting of the LSA, Indiana University Press.
- Akmajian, A. et al. (1979) *Linguistics: An Introduction to Language and Communication*, the MIT Press.
- Quirk, R. et al. (1972) *A Grammar of Contemporary English*, London: Harcourt.